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주(9월 6일) 현장 주일예배 안내
 - 1부예배(10시) 플러싱, 롱아일랜드 구역
 - 2부예배(11시 30분) 우드사이드, 베이사이드 구역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 친교 모임 안내
 - 다음 주(9월 6일) 주일예배 후에 지난 달과 같이 Alley Pond Park에서 점심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 오후 1시

8,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 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8/30		송명건		
09/06	최태신	송 섭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부자 청년 본문: 마태복음 19장 16~22절

기도제목: 1.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2. 예수님을 좇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3.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부자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특별히 부자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만남 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좋은 부자 청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세 군데를 참고하면 이 부자는 청년이며 부자였고 또한 그 당시 높은 관리였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관찰은 부자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하나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또한 청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자는 젊어서 고생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이를 먹은 후에 부자가 되는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젊어서부터 이미 부자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대부터 부자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부가 상속이 되어 청년으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존경받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이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 영생을 얻는 방법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부자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청년의 영생관은 그 당시 유대교의 영생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영생은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땅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착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많은 땅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좇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3. 장애물

마지막으로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좇을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내려 놓는 것이 부자청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좇았던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 청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할 것이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별로 포기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형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내려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 건물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건물주가 아니라, 착한 건물주들이 되어서, 세입자들이, '나는 정말 행운이었어! 정말 좋은 부를 만났어! 그 분 때문에 우리 어려울 때 많은 힘이 되었어!' 이런 주인! 건물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나! 돈이나!라는 프랑스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자크멜로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세상의 두 주인인 하나님! 그리고 돈! 이 두 사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도 건물주 위에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을 잘 다스리고 예수님을 좇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4번(잠언 3장)	
찬 송 Hymn	204장	
기 도(Prayer)	1부: 정경학 권사 2부: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19장 16~22절	
설 교 Message	부자 청년	
▲ 헌 금 Offering		
▲ 찬 송 Hymn	318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929)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